

개 요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 장면〉

우리 협회가 주최한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후원 문화관광부)가 9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 경주에 위치하고 있는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1세기 도서관 : 국가경쟁력의 전진기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의 도서관인 1,500여명이 참석하여,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대회 첫날 개회식에서는 우리 협회 이두영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원식 경주시장의 환영사, 이의근 경상북도지사와 中國圖書館學會 李桂蘭 秘書長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한길 문화부장관은 “제6회 독서문화상” 시상식에 이어 격려사를 하였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은 단순히 교육적 기능이나 지식·정보 습득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공간(허브:hub)으로서 주민에게 친근한 문화예술 활동이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전국 도서관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주요무대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 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중국도서관학회 대표단 단장인 李桂蘭 秘書長은 중국도서관학회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한국도서관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제72차 IFLA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할 것이며, 중국도서관인들은 한국의 도서관인들과 함께 더욱 협력하고 분발하여 양국 도서관 사업의 번영과 경제발전 및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위해 크게 공헌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전국도서관대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었다.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에 이은 “제6회 독서문화상”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에 송영숙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 및 (사)어린이도서연구회(회장 이주영)를 비롯하여 총 15개 개인 및 단체에 상이 수여되었다. 최근 학교도서관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김영환 국회의원은 「도서관인의 힘으로 21세기의 번영을」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방치되고 있는 학교도서관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 제6회 독서문화상 수상자 명단

- 대통령 표창 : 송영숙(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 (사)어린이도서연구회
- 국무총리 표창 : 최재간(새마을문고 목포시지부 회장), 장광철(새마을문고 부산시연제구지부 회장), 어린이도서관 “책의 기쁨”
-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 김현선(한밭도서관 주부독서회 회장), 정기원(전주시사립문고협의회 회장), 조현숙(광주송정도서관 사서주사보), 이영미(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PD), 김상철(수원선경도서관 영통분관장), 송일남(대전대양초등학교 교사), 신경숙(충북 중원도서관장), 구미도서관 느티나무독서회, 태백도서관 함박꽃어머니독서회, 법무부 부산교도소

인정하고,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서관인들의 지속적이고 단결된 관심과 동참을 요청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28~29일 양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번 대회 기간 동안 발표된 논문은 우리 협회 논문공모에 따른 주제발표 3회 7편, 세미나 5회 12편, 라운드테이블 4회 5편, 도서관관련 단체 워크숍 2회 2편, 도서관관련업체 워크숍 7회 7편으로 (각 종 발표문 제목 및 발표자 명단은 본지 7.8월호 47쪽 참조) 역대 도서관대회 중 가장 많은 모임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회 기간 중에는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도서관의 독서지도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세미나」에는 도서관인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 좌담회」에는 독서전문가 및 현장 사서 5명이 참석하여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독서진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29개 도서관 관련 업체가 참가한 「도서관문화 전시회」와 한국·미국·일본·프랑스·캐나다 등 5개국 「독서관련 포스터전시회」가 개최되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밖에 특별이벤트 <전통 규방문화와 독서>에서는 조선시대 여류문인 가운데 한 사람인 徐氏의 <규방에서의 차와 독서생활>이 재현되어 전통 생활문화 속의 독서문화가 지녔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었으며, ‘도서관인 명함자랑하기’ 이벤트에서는 예쁘고 개성있는 명함들이 게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인 연합”이 이번 대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하였으며(상세내용 25쪽 참조), 한·중 양국의 도서관협회 대표도 「한국도서관협회와 중국도서관학회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상세내용 22쪽 참조).



<도서관문화 전시회장>



<각종 세미나,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행사장>



<독서관련 포스터 전시회>



<특별이벤트, 전통 규방문화와 독서>

인사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도서관인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천년 신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경주에서 지난 1998년 대회에 이어 또 다시 서른 여덟 번째 전국도서관대회를 열게 된 것은 경주시와의 특별한 인연과 함께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새로이 중차대한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맡으신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님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전국도서관대회의 기조연설을 기꺼이 맡아주신 김영환 국회의원님께 전국 도서관인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중 두 나라 도서관협력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중이신 중국도서관학회 이계란 사무국장님과 대표단 일행께 한국 도서관계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올리며, 특히 이처럼 유서 깊은 경주에서 도서관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원식 경주시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도서관인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곧 지식정보화가 그 핵심이 될 것이며,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의 시대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과거의 삶의 형식과 내용과는 달리 사회나 개인의 삶의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강요될 것이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조짐은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절대적인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무한경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변혁이 도서관의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도서관 본연의 시대적, 사회적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이야말로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풍부하고 정리된 그리고 정제된 인류의 지식을 소장하고 보급해온 기관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귀중한 문화향유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문화의 창조가 한 나라나 개인의 핵심적 자원이 되는 시대로 도서관이야말로 지식기반 및 문화기반사회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있어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정부에서도 올해 초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계도 새로운 각오와 일심단결 하여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해서 도서관 정보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정보화 계획의 실천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도서관계가 하나로 뭉쳐 정부와 허심탄회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 도서관은 틀림없이 21세기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서관인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도서관의 혁신은 시설이나 장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개혁한다는 자세로 도서관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질과 봉사정신을 가다듬어 국민 모두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 탈바꿈되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소외 속에서도 오늘날의 도서관을 만들어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뛰어난 도서관인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21세기 문턱에서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시대는 과거의 헌신적 노력이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디지털시대에는 과거 우리 도서관이 담당해 온 영역들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고, 우리가 봉사해온 국민들의 삶의 양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이미 정보마인드가 확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서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시대를 앞서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도서관봉사의 원칙과 충실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성심을 다하는 진정한 지식 문화 서비스 기관으로 만들어 가는데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도서관인으로서의 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직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21세기 도서관 발전의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도의 확립과 개선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고, 전국 순회독서교육과 강력한 독서운동을 통해 전 국민 독서의 생활화, 신지식인화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서관계의 세계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작년 2006년 IFLA 총회 유치와 일본도서관협회와의 협력강화에 이어 올해에는 중국도서관계와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계속해서 우리 도서관계의 위상을 아시아와 세계로 확대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협회가 국내·외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회원님들의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박문석 기획관리실장님, 오지철 문화정책국장님, 이경석 도서관박물관과장님께 지금까지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논문발표와 워크샵,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포럼 등의 행사를 진행해 주실 단체와 발표자, 사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시회에 참여해 주신 관련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서관대회에 맞추어 경주시에서 독서진흥 캠페인과 행사들을 진행하시는 새마을문고중앙회와 경주시지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도서관대회가 도서관 가족의 화합과 단결, 축제의 시간이 되며, 나아가 우리 도서관인 모두가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장
이 두 영

격려사

존경하는 한국도서관협회 이두영 회장님과 전국 각지에서 오신 도서관인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김영환 의원님과 이의근 경북지사님, 이원식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이 함께 자리하고 계신 가운데 오늘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 경주에서 밀레니엄의 첫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공로로 영예의 독서문화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관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전국의 모든 도서관 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요, 지식·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만 새로운 시대에는 자본이나 토지, 노동력 같은 물질적 요소보다 지식이나 정보, 문화 같은 정신적 요소가 국가의 부(富)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8·15 경축사를 통해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창의적인 두뇌가 모든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대의 역사적 소명의 하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임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한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시설이요, 지식과 정보의 저장소인 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의 수준이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의 질이, 곧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번 전국도서관대회가 『21세기 도서관 : 국가경쟁력의 전진기지』를 주제로 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도서관 대표 그리고 사서 여러분!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던 문화예술계의 1% 확보를 달성한데 이어, 내년에 또다시 1.1% 가까운 예산을 확보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오로지 문화입국을 향한 『국민의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문화의 세기, 도서관진흥을 위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중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최신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고 보존이나 이용 가치가 높은 도서 또는 각종 학술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해 총 600억원에 이르는 국고와 정보화 촉진기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서들이 정보화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체계적인 정보화 특별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용 교양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존 사서인력이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나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셋째,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획기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장서의 규모야말로 도서관의 가장 큰 힘입니다.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인구 500여만명에 불과한 핀란드는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가 7.15권인데 이는 0.46권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스웨덴, 러시아 같은 대국들 틈에 끼어 수 백년동안 약소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핀란드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용 전화기 노키아(NOKIA)의 생산국이요, 인터넷 보급률 또한 세계 최고인 정보화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 예술 향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10억원에 불과했던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내년엔 6배 증가한 60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자료구입비 100억원 시대를 훨씬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국민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교육적 기능이나 지식·정보 습득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공간(허브 : hub)으로서 주민에게 친근한 문화예술 활동이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문화관광부는 전국 도서관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주요무대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맞아 남북도서관 간의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관 소장자료의 교환과 인적교류 및 사업촉진 등을 통해 도서관이 남북문화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력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

저는 어느 나라의 국민수준이나 국력은 도서관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 왕 『카네기』가 자신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한푼도 남기지 않고 3,000개의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회사한 바로 그 정신이 오늘날 미국을 인류 역사상 최강의 국가로 만든 밑바탕이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도서관을 세우고 더 많은 장서를 구입하며 훌륭한 사서를 많이 양성해야 할 중차대(重且大)한 의무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의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서관에 대해 부족한 사회적인 인식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오신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이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선도자라는 자부심 속에서, 맡은 바 임무에 계속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에게 독서생활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상호연계하여 “책읽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경주시 측과 행사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한국도서관협회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저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세리튼』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의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마을의 도서관은 지식의 상록수와 같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 한 길

축사

李桂蘭

中國圖書館學會 代表團 團長, 中國圖書館學會 秘書長

尊敬的李斗荣会长、曹元镐秘书长、各位韩国同行：

在金秋送爽之际，中国图书馆学会代表团应邀出席韩国图书馆协会 2000 年学术年会，为此我们感到十分高兴。我代表中国图书馆学会向韩国图书馆协会表示热烈祝贺！预祝大会圆满成功！

韩国人民是勤劳、勇敢的人民。众所周知，在亚洲金融危机给韩国经济带来巨大灾难之时，韩国人民举国上下团结一致，把爱国热情和高度的责任感化为战胜困难的巨大动力，许多韩国人（也包括韩国图书馆员）毅然参与到踊跃向国家捐献黄金和出售外汇的运动中，同时，政府加大改革力度，重视市场在经济发展中的主导作用，进一步开放市场，对金融、企业、公共部门和劳动部门四个重要领域进行结构调整和大力改革，反对贪污腐败。正是在韩国政府与人民的共同努力下，韩国经济实现了全面复苏。

韩国的图书馆事业在近几年也有了迅速的发展，图书馆的数量不断增长；图书馆的技术手段和现代化程度有了较大改观；图书馆读者服务工作的水平和服务深度不断提高；图书馆学研究蓬勃开展；图书馆学教育为图书馆事业输送了大批人材。与次同时，韩国图书馆界与国外同行的交往日益增多。尤其是 1992 年 8 月中韩两国建交以来，两国图书馆界的关系迅速发展。1999 年，中国图书馆学会副理事长、中国国家图书馆副馆长孙蓓欣应邀参加了贵协会的年会，受到了贵方的热情接待；今年 7 月，以李斗荣先生为团长的韩国图书馆协会代表团访问中国，并参加了中国图书馆学会的年会，为我们两国图书馆界的交流与合作奠定了良好的基础。

由于韩国图书馆界全体同行的不懈努力，使韩国图书馆事业得以迅速发展，并扩大了其在国际范围的影响。所以，韩国图书馆协会申请举办 2006 年第 72 届国际图联大会得到了包括中国图书馆学会在内许多国家图书馆协会的大力支持。国际图联执行委员会正式批准 2006 年在汉城举办第 72 届国际图联大会，这充分表明了韩国的国际地位的提高，并对弘扬韩国民族文化，学习外国先进经验，进一步提高韩国图书馆学情报学研究水平，促进图书馆及情报事业具有十分重要的意义。

中国是国际图联成立的发起国之一。自 1981 年起，每年派代表参加在世界各国举办的国际图联年会。1996 年又成功地在北京举办了第 62 届国际图联大会。这次大会从申请到召开，历时五年，中国图书馆学会承担了大量的筹备工作。大会共有 90 个国家的 3000 多名代表出席，受到了国际图联总部和各国图书馆界的一致好评。

中国图书馆学会将一如既往地全力支持韩国图书馆协会筹备第 72 届国际图联大会，并将组织全国的图书馆代表出席会议。

21 世纪是知识经济时代，我们正面临着新的挑战和机遇。中国图书馆工作者愿与韩国图书馆界同仁一道，振奋精神，努力学习，扎实工作，为繁荣图书馆事业，推动经济发展和社会的全面进步作出应有的贡献！

再次祝愿此次大会圆满成功，谢谢！

이 계 란(李桂蘭 / Li Guilan)

중국도서관학회 대표단 단장, 중국도서관학회 비서장

존경하는 이두영 회장님, 조원호 사무총장님, 그리고 한국의 도서관인 여러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가을, 우리 중국도서관학회 대표단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초청으로 2000년도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도서관협회를 대표하여 우선 한국도서관협회에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국민은 근면하고 용감한 민족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년에 있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도 막대한 어려움을 안겨주었을 때 한국의 전 국민은 애국심과 책임감을 갖고 합심 노력하여 뜻하지 않은 위기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금을 헌납하고 외화를 매각 하는데 적극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정보는 개혁의 활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에서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중시했으며 시장을 개방하고 금융·기업·공공사업부문·노동력부문 등 4개 중요한 영역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대폭적으로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놀랍게도 한국경제는 신속히 회복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의 도서관사업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도서관 수가 부단히 늘어났고 도서관 경영기법의 현대화 수준도 급속도로 향상되었으며 독자를 위해 봉사하는 수준이 높아졌고 그 심도도 깊어졌으며 또 도서관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도서관학 교육은 많은 우수한 후진 인재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도서관계는 세계 많은 나라 도서관계와 빈번한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1992년 8월 중·한 수교 이래 우리 두 나라 도서관분야의 교류관계는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1999년 중국도서관학회 부이사장이며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인 쑤페이신(孫蓓欣) 여사가 귀 협회의 초청으로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하여 환대를 받았고, 또 금년 7월에는 이두영 회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도서관협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도서관학회 전국대회에 참석하시어 금후 두 나라 간 도서관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튼튼한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도서관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도서관사업은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고 아울러 그 위상도 세계에서 크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도서관협회가 2006년 제72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중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많은 나라 도서관협회의 지지를 받았으며 IFLA는 집행위원회는 2006년의 총회를 한국에서 거행할 것을 정식으로 결정, 공표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음을 충분히 과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민족문화를 선양하고 세계적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의 학술연구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서관과 정보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IFLA의 창립에 기여한 나라 중의 하나로 1981년부터 매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행하는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참석하게 했으며 1996년에는 베이징(北京)에서 제62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거행하 마가 있습니다. 그 대회는 유치신청에서부터 개최까지 5년이라는 시일을 거쳤는데 중국도서관협회는 그 준비 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대회에는 90개 나라의 3,0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따라서 IFLA 본부와 세계 많은 나라 도서관계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중국도서관협회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한국도서관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제72차 IFLA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할 것이며 또 그 대회에 중국 도서관대표단을 파견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아울러 우리는 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도서관인들은 한국의 도서관인들과 함께 더욱 협력하고 분발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꾸준히 일하여 양국 도서관 사업의 번영과 경제발전 및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위해 크게 공헌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 조 연 설

김 영 환
국회의원, 시인

“도서관인의 힘으로 21세기의 번영을!”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님을 비롯한 각계의 내빈 여러분! 우리 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둘러보기 위해 멀리서 오신 중국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모이신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 먼저 반가운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 가운데, 유독 저만이 좀 동떨어진 분야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유든 도서관과 직간접의 업무로 관련된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국민들이 짜증내는 정치인이 왔으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회장에 도착하여 이 자리에 서서 몇 말씀드리는 지금까지 어떤 분도 저에게 밋상스러운 눈길을 보내지 않으시기에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향 각지의 많은 분들이 반가이 인사를 나누며 분에 넘치게 환대해 주셔서 저로서는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더구나 서른 여덟 번째의 이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기조연설'이라는 책무인데, 과연 저에게 그 역할을 소화할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문외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최대최고규모인 전국대회의 기조발제를 맡는다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여 여러분께 명실상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접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에서 이런 기회를 배려한 까닭은 아마도 '학교도서관 살리기'에 대한 저의 남다른 애정을 평가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안에 대한 저의 평소 소신의 일단을 풀어놓고 도서관과 저의 삶에 얽힌 소박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평소의 도서관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

저에게 도서관은 참으로 각별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나 선배 분들은 누구나 경험한 일입니다마는, 학창시절 우리에게 도서관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친구였습니다. 더구나 저같이 대도시가 아닌 시골출신의 학생들에게 도서관은 '교과서를 제외한 책'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지금도 시 아파트단지의 도서대여점보다도 더 작은 규모의 이른바 '책방'이 있다해도 책을 살 돈이 없어 그저 '창 너머 눈요기'에 그친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저의 경우를 좀 더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두분 부모님께서 다 세상을 떠나셨 습니다마는, 저는 참으로 빈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충북 괴산의 산골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끼니정

도 연명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 외의 뭔가에 대한 막연한 욕구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곳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게 신간인지 아니면 출판된 지 십 수년이 지난 책인지를 구분할 필요도 없었고, 가로쓰기인지 아니면 세로 쓰기라 읽기 불편한 책인지를 가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책'이었기에 소중했고, 도서관이었기에 좋았을 뿐입니다.

저에게 도서관은 영원히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서관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도서관에 남보다 조금 더 관심을 지니고 있다면 소박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도서관이 저의 인생을 바꾼 것은 물론 저의 정신세계를 운택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저는, 참으로 자그마하고 보잘 것 없던 도서실을 지키고 계셨던 그때의 선생님과 오늘의 도서관인 여러분께 많은 빛을 지고 있으며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제 삶 속에 깊이 침윤되어 있는 도서관을 말할 수 있음은 몹시도 기쁜 일입니다. 더구나 이런 자리에 함께 하여 21세기형 도서관의 발전방향과 준비상태를 전해들을 수 있음은 더 없는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문인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제38회 대회의 준비된 프로그램을 훑어보면, 우리 도서관의 현실과 과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또 새로운 변화에 걸맞는 도서관인의 연구와 고민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다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장 좋은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국가는 물론 개개인의 삶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는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자국은 물론 세계적인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세계적인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본격적인 지식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진국들의 지식인프라 구축은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꼼꼼하게 구축해온 기존의 지식시스템, 즉 도서관과 교육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발달한 각종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충실한 지식자원을 확보한 위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하여 전 세계적인 지식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지식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생각만큼 효과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도서관과 같은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지식자원의 보고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인류가 문자를 발견하기 이전부터 만들어 온 술한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여 당대의 이용은 물론 후대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회의 핵심적 지식보고라고 할 수 있습

니다. 특히 서구에서는 시민혁명 이후 시민들이 민주시민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각종의 지식과 정보 습득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이를 사회적으로 풀어가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학교나 대학, 기업 등에서도 지식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은 나름대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공공도서관이야말로 그 사회의 민주화 수준과 함께 문화와 지식의 수준을 드러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준을 경제수준 등에 비추어볼 때 아직 그 수준이 크게 낮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부와 사회 각계, 그리고 도서관 전문가들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의 줄기를 좀 바꿔서 몇 가지를 얘기할까 합니다. 물론 공공도서관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참여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 과 관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서관인 여러분!

'학교도서관' 예나 지금이나 그 역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결코 변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은 더욱 다양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대와 사회여건이 놀랍도록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도서관도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 또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택이 난처할 정도로 책더미에 묻혀 있으며, 쏟아지는 정보를 주체하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미처 아이들 주변의 책과 정보를 챙길 여유도 없을 만큼 변화의 물결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새로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계층과 상대적으로 덜 가진 계층 사이에서 간극이 생기고 가정과 학교에서 심각한 피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장정으로 된 수십 권의 전집류를 몇 종씩이나 무조건 비치하여 아이들을 주눅들게 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비좁은 서점에 쪼그려 앉아 한 권 한 권 아쉬운 듯 책읽기에 열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에는 책과 컴퓨터가 넘치지만 학교에는 도서실 혹은 도서관 '도' 자(字)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 학교의 현실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양극화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아이들을 이 지경으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좁게 보아서 도서관의 소중한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교육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고 말합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만이 21세기 국가의 명운을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고 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을 바꾼다거나 입시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거나 하면서 요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을 한 두 번 한 것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 전향적인 제도 변화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도서관을 이렇게 방치해두고 교육개혁을 말한다는 것은 주춧돌 없이 호화궁전을 짓겠다고 호언하는 것이나 진배없으며 결국에는 성수대교가 붕괴했듯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

께서 더 잘 알고 있기에 말을 줄이겠습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이러한 '기초 없는 집짓기'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져야 합니다. 저는 책임의 일단을 통감하면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정부를 탓하고 정치인을 나무라면서 혹은 자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거세게 문제를 제기하고 광범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정부 또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치인들 역시도 동참이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저에게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도서관계의 총괄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굳이 특정한 분야만을 따로 강조하는데 따른 고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도서관인 여러분의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보완 그리고 정보화에 관심의 무게를 두신 분도 있을 것이며 전문도서관에 치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학교도서관이냐'고 물으실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도서관인 여러분!

앞서 저의 경험담에서 말씀 드린대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학교 공부와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생활하는 습관을 키운다면 모두의 도서관 이용 생활화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작은 차이와 방식의 미묘한 차이를 내세우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서관 운동'의 일환이라 여기고 도서관인 여러분의 전폭적인 참여와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매기고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부딪치는 문제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서교사를 정식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소용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론을 마칠 수는 없지만, 시작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서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대'라는 공식적 운동단체가 발족하면 많은 의견이 도출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한 가지씩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에 '학교도서관 살리기'의 큰 울타리 안에서 토론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학교도서관 문제는 그치도록 하고 다른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기왕 이 자리에 나섰으니, 도서관의 정보화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고차원적 수준에서 '디지털혁명'이라는 21세기의 화두와 연결시켜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의 상관관계 및 존재방식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폭과 깊이를 더해 가야 하겠지만, 한 두 마디로는 끝낼 수 없는 전문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가 합의하여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도서관 정보화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 도서관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아주 훌륭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제반 시책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도서관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저의 일차적인 책무라 보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부의 도서관정책이 보다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작업에도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숨에 만족할만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다보면 지금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감히 도서관인 여러분께 외람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서관인 여러분이 '권리 찾기' 혹은 '내 몫 제대로 챙기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만능이다, 반드시 우리는 대접받아야 한다는 집단이기주의를 키우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당하고 공개적으로 도서관계의 발전을 토론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결론을 관철시켜 나감에 있어서는 일회성 구호나 즉흥적 행동보다는 집요하고 단결된 관심과 동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결속과 적극성을 감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가 그러한 결의를 담은 기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서관인 여러분!

역사 속에서 명멸한 동서양의 수많은 국가를 돌이켜볼 때, 흥한 나라는 반드시 도서관문화가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점을 명심하여 21세기 국가번영의 성공 여부가 도서관인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갑시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지식정보강국을 만드는데 우리 도서관인들이 선두에 섭시다.

이 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져 알찬 열매를 내놓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저의 소회의 일단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의 달 기념 전문가 좌담회

- 일 시 : 2000년 9월 29일 13:00-16:0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에델바이스홀
- 참석자 : 권은경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사회), 김지현 (인천교육과학연구원 문헌정보실 사서), 송은아 (의왕시립도서관 사서), 조계출(제주송악도서관 사서), 황금숙 (대림대 문헌정보과 교수)
- 토론주제 :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전문사서’ 필요
 - ⇒ 독서교실을 수료한 아이들이 직접 어린이 도서사서를 한다. 아이들이 직접 강사를 함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 - 현재 3학년생을 지도할 때 6학년생이 강사가 되는 형태)
- 공공도서관의 이용도 분포를 조사해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국민독서진흥’을 부흥
 - ⇒ 국민독서진흥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 프로그램이 필요
- ‘가정의 독서 생활화’ (부모와 함께하는 도서관)
 - ⇒ 연중 계속해서 1주일에 1번 정도 지역주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의 중요성’ 강좌가 있어야 함.
 - ⇒ 아동독서 프로그램(일일독서교실, 도서관 체험학습, 방과후 독서 학교 등)을 만들어 아동과 어머니를 연결시킨 통합 독서교육을 연중 계속시행. 어머니를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고, 교육시켜 자원봉사자로 흡입시키는 방안
 -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학부모 독서교실)을 만들어야 함(‘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책’ 등의 프로그램).
 - ⇒ 성인프로그램에 아이들 프로그램을 넣는 방안
- 독서회 조직
 - ⇒ 수료 후 독서회 기수별로 활동
- 사례집 발간 이용
 - ⇒ 각 도서관의 여러 독서회 활동이나 순회독서 등 독서관련 활동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사례집을 펴내거나, 발표할 수 있는 공간 필요 (정보공유 차원에서 매우 중요)
- (ex : 독서관련 행사 후기담을 문화관광부나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 올린다.)
 - ⇒ 아이들 중심의 회지를 만들
 - ⇒ 관련 전문 워크숍은 절대적으로 필요
- 사서의 인식과 태도(mind)가 중요
 - ⇒ 사서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 사서 + 교육자라는 사명감이 필요
- 사서의 업무에 대한 개념정립이 새로이 될 필요가 있음
 - ⇒ 분류·목록의 업무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연수 프로그램, 구체적 프로그램 필요.
 - ⇒ 독서지도 전담 부서 필요
- 현재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순회지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복지시설, 장애인, 노인, 보육원, 어린이집 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 책 보내주기 운동(그림책, 동화책), 책읽어주기 자원봉사, 장애인의 경우 택배서비스
 - ⇒ 어린이집 등에 공문을 보내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도서관 견학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 교장, 교감, 교육청 등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관계자의 인식 제고 노력 필요
-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 프로그램
 - ⇒ ‘어린이도서관연구회’와 ‘동화마을’ 등의 좋은 프로그램 삼입
 - ⇒ ‘여름독서를 역사로 떠나자’
 - ⇒ 좋은 책 전시회, 빛그림이야기, 종이접기, 그림그리기(예 : 마산의 ‘책사랑’)
 - ⇒ story telling(저학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지만 고학년 대상도 좋을 것 같음)
 - ⇒ 동화구현 프로그램(엄마와 아이가 한 조), 하루에 동화 한편 읽어주기